



갯곶돈대 전경

갯곶돈대, 2023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2023년 대상지는 갯곶돈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군-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식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주관하는「2023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갯곶돈대가 최종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에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1년 연미정, 2022년 고려궁지에 이어 2023년 갯곶돈대 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본격적인 갯곶돈대 사업추진에 앞서, 강화군과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22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부터 상호 협력해 갯곶돈대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 수용태세 개선, 여행상품 개발 및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갯곶돈대(사적 제306호)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 600명과 격렬한 전투를 벌인 곳으로 연간 53,000명이 방문하는 강화8경이자 강화군 대표 전적지다.

갯곶돈대 안에는 전쟁박물관과 천연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된 400년된 탕자나무가 있으며, 특히 봄에 벚꽃과 영산홍이 만개하는 역사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하고 있는 곳으로, 강화나들길 제1코스 심도역사 문화길, 제2코스 호국돈대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쾌거는 연미정과 고려궁지, 갯곶돈대를 비롯한 강화군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갯곶돈대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고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인천·경기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주민 건의사항 등 현안 적극 검토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군 연두방문



시장님 연두방문 주요업무 보고회



시장님 연두방문 주요업무 보고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강화군을 방문해 기관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주요업무 보고, 생생톡톡 애인소통, 군 의회방문, 기자실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인천시 공무원연수원 강화 교동도 설립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고려도성 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구축 ▲동검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생생톡톡 애인소통'의 시간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공사 조속추진 ▲해안순환도로 4-2공구 조속추진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장애인회관 신축 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지표조사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군의 현안사항과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강화군과 협력하면서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년간 국시비 포함 약29억원 지원. 최고의 보육환경 조성” 강화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린리모델링 조감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이 노후되어 실내환경이 열악한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외벽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참여한 지은지

10년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

그 결과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강화군립어린이집, 남산군립어린이집, 불은군립어린이집/사업비 14억8천5백만원) ▲2022년도 1개소(길상군립어린이집/사업비 8억5천8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하점군립 어린이집, 삼산 군립어린이집/사업비 6억2천1백만원)는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는대로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강화군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모두가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선8기 공약사항(제목: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의 조기 달성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2023년 어선 안전장비 등 지원 확대 추진



어선안전장비 등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대비 80% 증가된 국·시비예산을 확보하였다.

지난 해 9천 5백여만원의 예산으로 25척의 어선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연근해 어선 안전장비 및 노후 기관 대체 등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선 장비 및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예산 1억 9천여만원으로 45척 이상의 어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가능 품목으로는 ▲V-PASS ▲VHF-DSC ▲구명조끼 ▲자동 소화장치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발전기 등 어선 안전 장비와 ▲가솔린·디젤 기관 ▲고효율유류절감장비 ▲LED등(燈) 등 에너지 절감장비로 구입·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강화군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어선 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어업 경비 절감과 안전사고의 예방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화군, 가축분뇨 수분조절 톱밥·왕겨구입비 60% 지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 및 왕겨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이며, 오는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무허가 축산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6억6천만원으로 사업비의 60%를 보조하며, 총 5,500톤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로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 and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화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건축물에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에 대한 철거와 처리, 지붕개량 비용 등이다.

올해는 전년 보다 2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된 8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100동 ▲비주택철거 60동 ▲지붕개량 20동 등 총 18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이하 면적일 경우 전액 지원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처리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라며

슬레이트
철거비용지원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의 처리를 희망할 경우 한분도 빠짐없이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최벽하 기자

신청 ▶ 2023년 3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강화군의회, "유정복 인천시장과 차담회"



유정복 인천시장 연두방문(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장이 연두방문 일정 중 의회를 방문해 강화군의원들과 인천시와 강화군의회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강화군의회 시장과 차담회

차담회 자리에서 군의원들은 시정 기조와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박승한 의장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속히 시비를 편성하여 어선 안전 조업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배충원 의원은 석모도 온천수를 활용한 시설 원예·화훼·과수 등의 친환경 재배와 관광 상품개발 등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안했으며, 최중찬 부의장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 해안도로 (5공구) 건설 사업이 30년이 지났음에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군의 현안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강화군과 소통하면서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2023년 에너지 절약실천 결의대회 및 척사대회



2023년 에너지 절약실천 결의대회 및 척사대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



2023년 에너지 절약실천 결의대회 및 척사대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강화군 7개조합장 후보자 최종현황

강화군을 위한
모두의 선거입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내역 (2월 24일 기준)

선거명	기호	후보자 성명	비고	이력
강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1	한동환	62세	전 강화농협 상무, 전 강화농협 송해지점장
	2	이한훈	61세	현 강화농협 조합장, 전 강화농협 송해지점장
	3	이재춘	59세	전 강화농협 대의원, 전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감사
서강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1	황익환	62세	현 서강화농협 조합장, 현 농협중앙회 대의원
	2	이갑상	64세	전 서강화농협 비상임이사, 전 교동면 이장단장
	3	이중호	62세	전 서강화농협 경제상무, 전 서강화농협 교동지점장
	4	황규태	59세	전 교동면 농업경영인회 회장, 전 서강화농협 감사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1	유양열	62세	전 길상농협 이사, 현 강화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2	고석현	68세	현 강화남부농협조합장, 현 농협중앙회 대의원
	3	공중기	56세	전 강화남부농협 감사
강화인삼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1	한태규	63세	전 강화인삼조합 감사, 전 강화남부농협 설립위원
	2	김옥현	68세	전 강화인삼연구회 회장, 전 강화인삼농협 이사
	3	유동희	59세	전 강화인삼조합 전무
	4	한홍열	59세	전 강화인삼조합 감사, 전 강화학원연합회 회장
	5	박동병	76세	전 강화인삼조합 수석이사, 전 강화군 농업대학원 식량작물과 과정 이수
인천강화옹진축산업 협동조합장선거	1	송정수	추첨미 실시 (후보자 1인)	현 인천강화옹진축산업조합 조합장(※무투표 당선)
경인북부수산업 협동조합장선거	1	남궁현준	69세	전 경인북부수협 비상임이사, 현 해운정 양식장 대표
	2	박용오	62세	전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현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
	3	이만식	64세	전 경인북부수협 비상임이사, 현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강화군산림조합장선거	1	나갑수	62세	전 강화군산림조합 대의원, 전 불은면 이장단장
	2	권영태	58세	전 강화군산림조합 상무, 현 강화군산림조합 조합장

농업리더 육성 「2023년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개강



농업아카데미 강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3년 강화군 농업아카데미」를 개강했다.

이번 2023년 농업아카데미 과정은 ▲상반기 7개 과정(밭작물, 온난화대응과수, 포도, 소형농 기계, 수경재배, 기능성 쌈채소, 떡제조 기능사)과 ▲하반기 7개 과정(농산물 가공,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생활원예, 양봉전문, 유튜브 마케팅, 치유농업, 미생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층 더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특성화 과정을 별도 운영한다. 특성화 과정은 고령화된 농업환경의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농업인 과정(2월~6월, 18회, 72시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주를 위한 귀농·귀촌 과정(3월~8월, 22회, 64시간),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한 강소농 과정(7월~11월, 27회, 1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2022년 15개 과정, 518시간, 501명의 교육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특성화 과정 편성으로 17개 과정, 563시간, 550명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화군 농업아카데미는 다양한 과정의 편성으로 기초이론부터 영농마인드, 농산물가공, 농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다. 선진지 견학 및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 등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아카데미는 농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특성화과정은 전문화된 심화과정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32-930-4112



강화군, 농업인을 위한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농업인 안전보험료 70%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나선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이 또한 지역농협에서 가입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등 과수, 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등 70개로 올해 귀리, 양상추, 시설 봄감자가 새로이 추가됐다. 각 품목별로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가입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적기에 농작물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 안전보험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군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최벽하 기자



이양전 약제 처리

알맞은 비료 사용량 추천으로 경영비 절감 영농철에 앞서 무료 토양검정 신청하세요!!



토양검정(사진제공 농업기술센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적정량의 비료를 주게 되면 토양 염류집적을 방지해 작물의 생육이 좋아지고 비료 사용량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시료봉투에 토양을 채취해 필지 지번, 면적, 재배작물명 등을 기록해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단 분석기간은 의뢰일로부터 2주간 소요되므로 비료를 주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시료 채취 방법 등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와 시료 채취용 봉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센터에서 직접시행하는 토양검정들도 다양하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사 ▲논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연구사업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의 토양검정도 신속하게 진행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 ☎ 032-930-4136

종합분석실 ☎ 032-930-4156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땅의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건강한 토양환경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의 정확한 양분상태를 파악해 작목별 필요한 비료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예방 활동 강화! 산림 연접 화목보일러 합동점검 강화군,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1일 마니산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화소방서, 화도면 산악구조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이 많아지면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음에 따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했다.

또한,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일러 사용 및 대처 방법을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산불캠페인



산불캠페인



강화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은 2022년도 12월 기준 만 60세 이상 인구가 33,416명, 만 65세 이상 인구는 24,763명으로 인천시 모든 군·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다.

치매유병률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아 중앙치매안심센터 최근 통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9.04%, 만 65세 이상 12.01%의 유병률(전체 인구 중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수치들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모든 중증도별 유병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화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매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군민의 인지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도 인지선별검사 건수는 3,356건이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받아 등록된 대상자는 170명 정도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지선별검사이다. 인지선별검사는 인지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치매가 의심되는 군민이라면 강화치매안심센터 및 북부·남부인지건강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 인지저하로 의심될 경우 전문의를 통한 정밀진단 검사 및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치매치료관리비(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조호물품, 1:1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배회 인식표 및 위치 추적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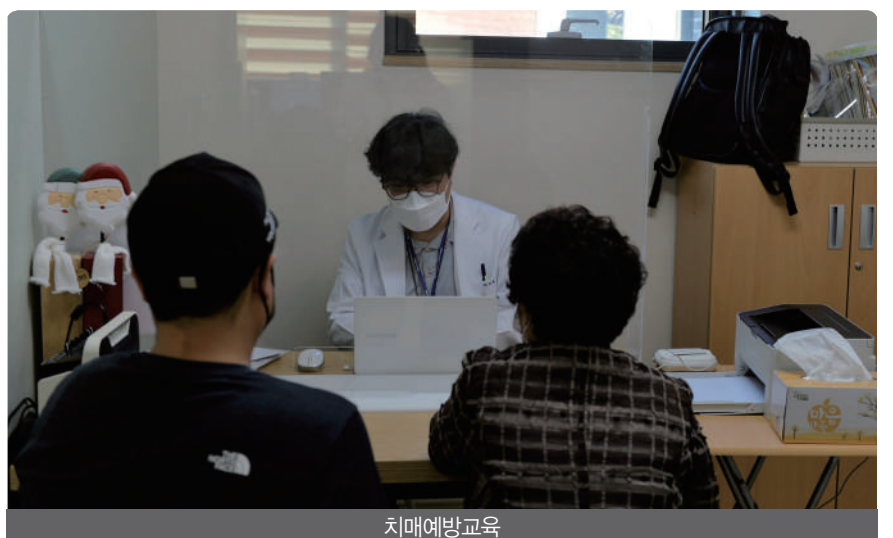
이밖에도 센터는 ▲치매 조기검진('치매 진단검사의 날' 운영) ▲치매환자 관리(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 환자 쉼터 및 치매 안심돌봄터 운영) ▲치매가족지원 서비스(가족카페 및 치매 환자 가족교실 운영, 치매 가족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사업(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송년 발표회, 치매 파트너 사업, 치매 안심마을 시행) ▲치매 교실(치매 예방 교실, 인지 강화 교실)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많은 강화군의 특성상 본인 혹은 가족이 치매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강화군민의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치매안심센터 ☎032-930-4027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육

인천시, 버스·택시 등 7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도시가스,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등 7대공공요금동결결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민생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조속한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시장의 의지로도 읽혀지며, 인근 타 시·도와 달리 인천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인천시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전부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통 큰 결정을 한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 원, 도시철도는 50억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 중에는 감면하기로 해,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시의 시민 부담 완화 의지에 더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2년 연속 국비 6조 목표, 미래성장과 시민행복에 집중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 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6조 원대의 국비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 도시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중점 사업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사업, 정부정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조 5,000억 원보다 5,000억 원이 증가한 5조 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로 달성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 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2,500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5,041억 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1·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380억 원),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656억 원) 등 20개 사업으로 2024년도 국비 2,386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안의 금액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임

계속사업은 연차별 국비 확보를 위해 ▲백령공항 건설(2,018억 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 원), ▲GTX-B(6조1,932억 원),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884억 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 원),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정주여건 지원 등, 1,779억 원) 등은 철저한 집행실적 및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안의 금액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임

또한, 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 85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980억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필요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2조 830억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사업 선정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안의 금액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임

각 정부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비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 심의 작업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매월 국비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8기 중점 사업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 권주형 기자

20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스타트 강화군, 독거어르신 생신잔치 ‘오! 해피데이’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3일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생신잔치 ‘오! 해피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해피데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칠순, 팔순, 구순을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생신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총 44명의 어르신 댁을 찾아가 잔치를 진행했다.

다양한 축하 공연과 기념 촬영, 전담사회복지사의 신나는 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어르신 중에는 생전 처음 케이크를 받아본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생신잔치를 위해 곱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던 어르신도 있었다.

군은 ‘오! 해피데이’를 시작으로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방공연 맞춤 노래자랑 ▲효도퍼즐 ▲영양플러스 ▲명절맞이 상차림 등 어르신들에게 위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일상을 챙길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신잔치



생신잔치

내고장 환경은 내가 지킨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 지난 22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외부환경정화 4개 사업단(강화사랑지킴이, 근린생활시설관리지원, 명품마을 가꾸기, 환경지킴이)을 중심으로 중앙시장, 도서관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인복지관은 월1회 이상 환경정화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에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보다 활기차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감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할 수 있었으며, 내 고장 강화를 내손으로 지킬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에 참여하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싶다.”고 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 환경정화



노인복지관 환경정화_중앙시장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건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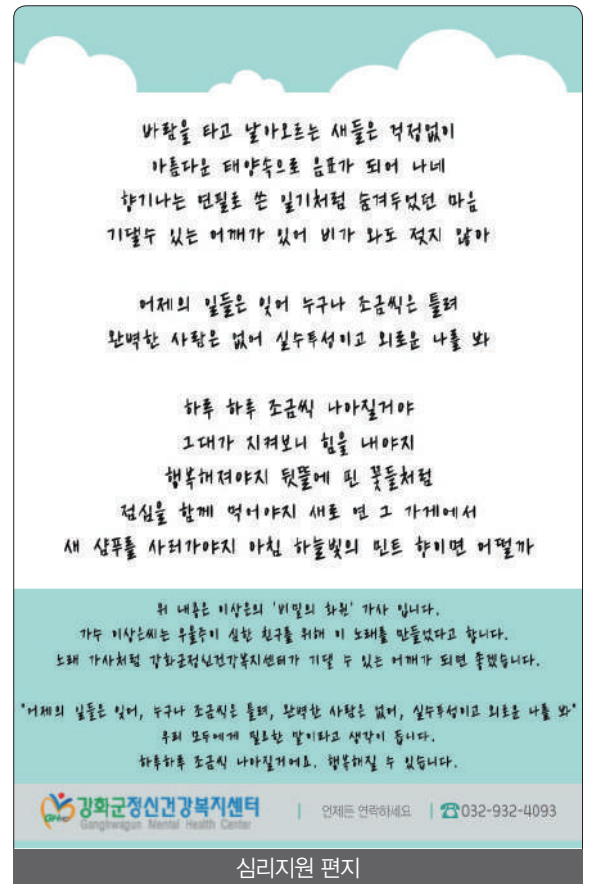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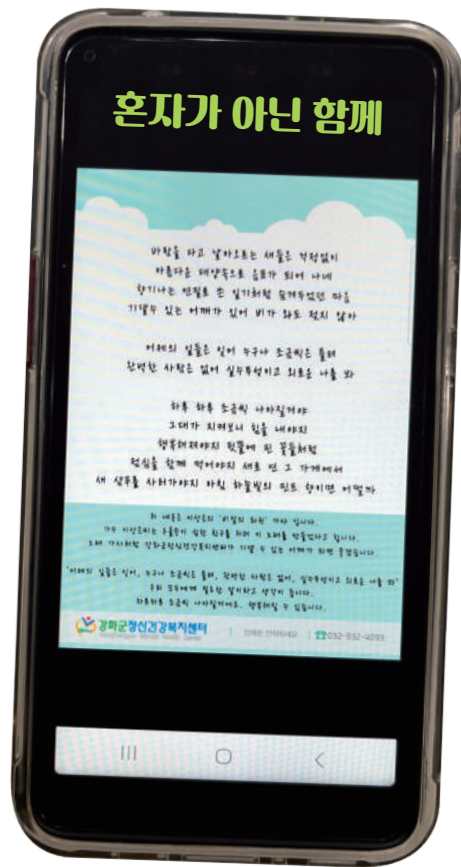
강화군,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게 심리지원 편지 발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월 1회 가족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격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약 80명에게 심리지원 편지를 발송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센터는 이외에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상담 및 개별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가족 상담 및 심리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상담 ▲정신건강 전문의연계 및 치료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만성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및 상담 ☎ 032-932-4093



아동학대 없는 마을 만들기 추진

길상면 이장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화군 길상면(면장 김재구)이 지난 23일 마을주민과 이장단 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근절을 목표로 아동학대의 종류(신체, 정서, 방임, 성학대)와 신고방법, 실제 사례 같은 전반적인 내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아동 보호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진행했다.

심장섭 이장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지역 내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대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구 면장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징후가 있다면 길상면사무소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길상면 이장단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통법규 위반 안내문자를 이용한

앱 스미싱

피해 예방법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문자(SMS)를 받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한 악성 URL을 누르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절취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 요구!



앱 스미싱 예방법

스미싱 문자 사례

[Web발신]
[교통민원24] 차량번호위반 범칙금 감점 처벌 고지서 발송 완료
<http://jtaf.lmwe.press>

☒ 경찰청에서는 교통민원24 등 특정 사이트로 범칙금 납부 등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범칙금 사칭 문자를 통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강화경찰서



강화군

기고

이경수

마리산 참성단



마리산

**“한번 보고 가득한 회포를 풀고 두 번 보고 천 년 역사를 알만한 강화!
우리가 원하여 보고자 하는 강화! 우리가 기어코 가야만 할 강화!”**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가자봉인’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잡지 《개벽》에 실은 글의 일부입니다. 가고 싶은 강화가 아니라 ‘기어코 가야만’ 하는 강화라고 했습니다. 가자봉인뿐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열망하는 이마다 ‘기어코’ 강화에 다녀갔습니다.

교통 불편하던 시절, 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강화를 찾았을까요. 참성단을 ‘뵈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산 참성단에 오른 가자봉인은 그 감회를 이렇게 썼습니다. “단군이 등을 어루만지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처지가 되어 찾아온 마리산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시조인 단군 품에 안겨 위로받았습니다. 독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까지 오기에 애썼구나. 걱정 말거라. 너희는 기필코 뜻을 이룰 게다. 내가 힘 되어 주마.’ 아마도, 가자봉인은 단군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참성단은 학생들 수학여행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하는 삼랑성(정족산성)과 참성단을 돌아 보는 코스였어요. 광복 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강화문화원에서 강화 역사에 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강하던 한 분이 말씀해주셨는데요, 학생 때 강화로 수학여행을 왔었다고 합니다. 배 타고 초지진에 내려 걸어서 삼랑성에 갔다가 또 걸어서 참성단까지 가셨대요.

전국에, 고조선 또는 단군과 관련된 유적이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옛 역사책에 기록으로 남은, 그러니까 일종의 정통성을 확보한

유적은 강화의 참성단과 삼랑성뿐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고려사》입니다. “마리산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제단이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랑성을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쌓은 것이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성단(사진 출처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려사》 말고 또 있나? 예, 또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도 《고려사》와 비슷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전하기를[世傳]”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참성단과 삼랑성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몹시 소중한 내용입니다.



참성단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성화 채화를 시작한 때가 1955년 제36회 대회입니다. 장소는 당연히 마리산 참성단이죠. 그런데 1990년 제71회 전국체육대회 때 성화 채화 장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대회 장소인 충청북도가 성화 채화를 강원도 태백산에서 하게 해달라고 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던 겁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성화 채화지 변경을 시민운동의 일환으로까지 전개”했습니다. 태백산도 ‘민족의 영산’이니, 태백시의 바람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일 갑론을박, 대한체육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학문적 고증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단군성조와 관련된 성지인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마니산 가운데 남한지역에서는 마니산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성역”(한겨레신문, 1990.06.30.)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화 채화를 태백산이 아닌, 마리산 참성단에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은 것은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고조선시대에 쌓았을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고려사》에도 《조선왕조실록》에도



1920년 합일학교 정족산 마리산 수학여행(사진 제공 합일초등학교)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단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단고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오 51년(B.C. 2283), 임금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랑성을 짓고 제천의 단을 마리산에 쌓게 하였으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기원전 2283년에 단군이 참성단을 쌓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계는 《한단고기》를 위서(僞書, 가짜로 꾸며서 쓴 책)로 봅니다. 물론 위서가 아니고 진짜 역사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귀가 얇아서 이쪽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학계의 공론을 따라 《한단고기》 기록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성단을 쌓은 게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성단이 기록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고려시대입니다. 1264년(원종 5)에 고려 임금 원종이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참성단을 진짜 고조선 때 쌓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오랜 세월 참성단이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세계화, 다문화 시대인 지금 ‘민족’이나 ‘한민족’이라는 용어가 구 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회피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역사를 구조화해서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필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 ‘일제시대 바뀐 우리 산 이름 되돌린다’(2005.10.08.)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마리산도 일제강점기에 마니산으로 바뀌었다고 썼습니다. 하기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마리산이었다. 마리산의 ‘마리’는 머리를 가리킨다. 으뜸이라는 의미인데 일본인들이 민족정기를 꺾으려고 마니산으로 바꿨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그랬지요. ‘나쁜 새X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구석구석 나쁜 짓 참으로 많이 했지만, 그들이 마리산을 마니산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리산으로 불렀습니다. 머리산이나 그 비슷한 의미로도 불렀을 거예요. 이를 한자로 옮긴 것이 摩利山입니다. 고려시대까지 마리산(摩利山)으로 쓰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역사책에 슬그머니 摩尼山(마니산)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마니산과 마리산이 혼용되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면 마리산이라는 표현이 거의 사라지고 마니산으로 이름이 굳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니산’을 공식 지명으로 씁니다. 국어사전에 ‘마리산’은 나오지 않아요. 맞춤법상으로 따지면, 마리산은 틀린 표현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강화 주민들 대개가 여전히 마리산이라고 발음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불렀기 때문에 마‘니’산이 어색한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책에 摩尼山으로만 나오게 되는 조선후기부터 사람들은 마리산을 “마니산”으로 발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摩尼山이라고 쓰기는 해도 여전히 마리산으로 읽고 불렀을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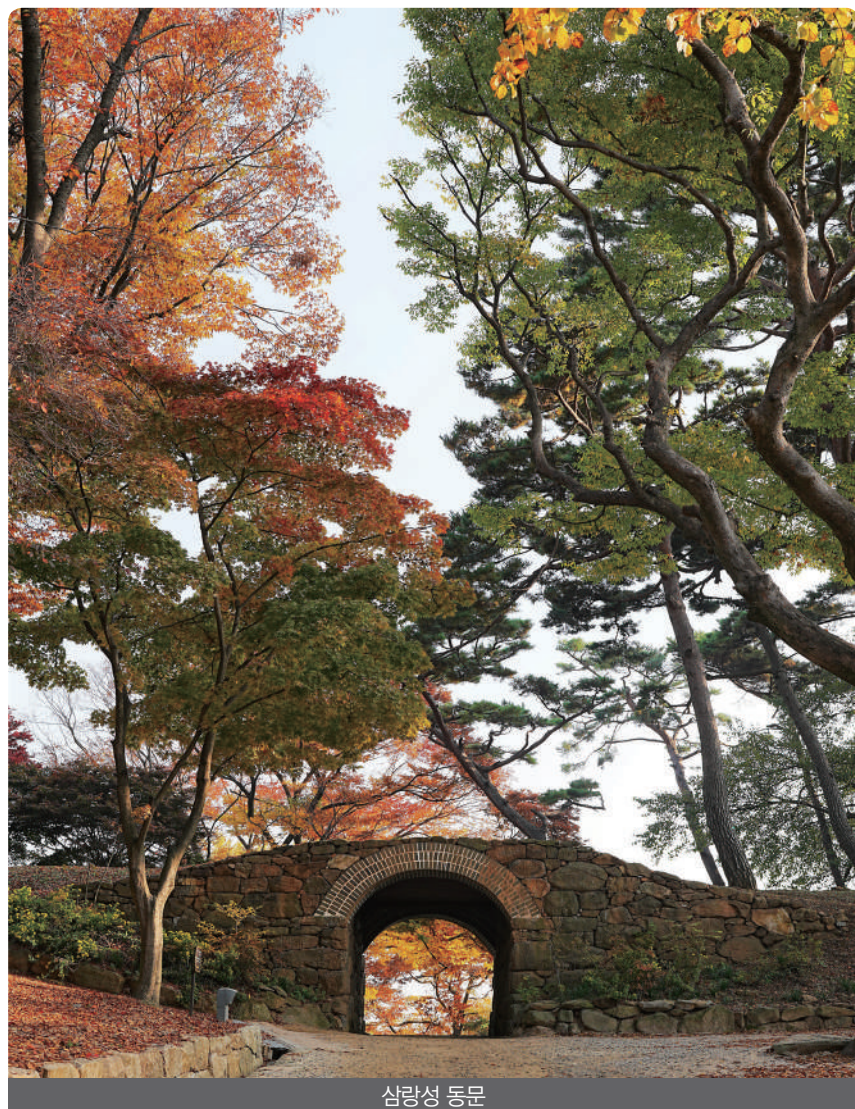
摩利山도 마리산으로 읽고 摩尼山도 마리산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摩尼’는 머리를 뜻하는 ‘頭(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摩尼’가 ‘頭’라면, 결국 ‘摩尼’와 ‘摩利’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제작한 강화 지도를 보면 摩尼山이라고 쓰고 가타카나로 발음을 병기했습니다. “マリサン” 마리산입니다. 마니산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역 주민들이 마리산으로 발음하는 걸 듣고 그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마리산’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1995년에 강화군과 인천시가 함께 마니산 명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마니산이라는 공식 지명을 마리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마리산 이름을 되찾으려고 애쓰던 이들의 노력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앙지명위원회(지금 국가지명위원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동아일보(1995.12.21.)가 중앙지명위원회의 거부 사유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마니산은 전국적 또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이므로 인천시의 결정만으로는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또 하천 산 등 지명변경은 대학 또는 연구소의 학술조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명위원회의 결정 수개월 전에 조선일보(1995.07.28.)는 “강화도 마니산의 이름이 마리산으로 바뀐다.”고 보도하고, 한겨레신문(1995.07.28.)은 “마니산 ‘마리산’ 된다”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신문사들도 마니산을 마리산으로 바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삼랑성 동문

한편, 2016년에 화도면에서 ‘마리산 이름 되찾기 강화군민대회’가 열렸습니다.(경인일보, 2016.07.11.) ‘마니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성으로 보아 ‘마리산’이 더 적합한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마니산’은 ‘마리산’이 되어야 합니다. 

기고

왜 2050년 인가



김 학 준

인천언론인클럽 대의원

1991.06~2019.06
서울신문 사회2부차장2019.10~2021.08
인천일보 논설위원2021.07~현재
인천언론인클럽 대의원

요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에 익숙한 50대 이상에서 더욱 그렇다. 삼한사온은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3일, 따뜻한 날이 4일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이 유명한 날씨 공식은 이름 값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밑도는 강추위가 2주일 가량 이어졌다.

또 1월 중순에는 때아닌 고온이 나타났고, 설 연휴부터는 21세기 들어서도 손에 꼽히는 강력 한파가 몰아쳤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적인 한파라는 말이 영 낯설다. 그러나 삼한사온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붕괴되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근 발간된 ‘2050년 거주불능 지구(데이비드 월드 저)’는 기후 재앙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가장 우선적인 위협은 폭염이다. 1980년대 이래 폭염 발생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다. 1500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 여름 기온을 경신한 적이 5차례 있었는데 모두 2002년 이후다. 저자는 “너무 빨리 더워지니 예측 따위가 소용없다”고 말했다.

해수면(바닷물 표면) 높이는 탄소배출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십년 내에 1.2m~2.4m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도 0.6~1.8m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런 수치를 보고 안심하는 역효과를 걱정한다. 지구 온난화를 강력히 경고해도 고작 몇 m의 해수면 상승이라며 안도하는 것은 제 무덤 파는 꼴이라며 비꼰다. 바닷가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인구 1000만명)는 2050년 쯤이면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길 거라고 하면 실감날 것이다. 북극의 얼음은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얼음이 두꺼운 남극도 추이가 심상치 않다.

다른 관점에서 2050년을 주목한 사람도 있다. 세계적인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2050년 문명이 붕괴한다’는 강좌에서 경제사회학적 요인을 거론했다. 국내, 또는 국가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불평등이 문명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단적인 예로 소득차가 너무 심해 남미에서 미국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몰려들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난민 행렬을 들었다.

또 다른 붕괴 요인으로 핵전쟁을 거론했다. 핵무기는 공멸을 가져 오기에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는 달리 오판에 의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예로 북한이 핵실험 과정에서 목표를 잘못 정해 미국 인근 해상에 폭탄이 떨어질 경우 미국이 오인해 전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을 설정했다. 더 나아가 테러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제조법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어서 테러 집단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하다”는 말까지 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세계적으로 만연된 기후 위기를 꼽았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50년 거주불능 지구’ 저자인 데이비드 월드의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 과학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자연재해가 결국 인류에게 궁극적·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불평등이나 핵전쟁 문제는 2050년 이전 또는 이후에 야기될 수 있지만, 기후 위기 파국 시점을 예상해 2050년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에 열거한 불평등, 핵전쟁, 기후 위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명제라고 강조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바로 당신(you)”이라고 말했다. 인류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듯이, 변화에 적응하고 멸망 위기를 넘겨 생존과 번영을 이어가려면 각고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50년이 되면 나(1937년생)는 죽을 테지만 미래세대는 결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 상담지원, 부모교육 지원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강화군!

청소년이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강화군(군수 유천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강화군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0%인 7,346명('23. 1월말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는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경제적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성장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자살·자해, 학교 밖,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의 증가 추세에 따라 센터에서는 청소년안전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동을 위한 실무위원회 4회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심리지원키트 80개 지원, 긴급지원 1회, 아웃리치 8회 등 680명 접촉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한 약 390건의 상담 등 이외 다양한 안전망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센터는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센터 개소 이전에는 청소년 위기 개입 지원을 드림아동보호팀, 희망복지지원팀 등에서 했으나, 대상이 취약계층이나 학대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그러나 센터 개소 후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한 긴급구조와 병원연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센터 상담자가 쉼터 입소를 지원하고 치료 및 동석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적기에 파악한다. 그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

개인상담 415건 ▲집단상담 217건 ▲전화상담 390건 ▲기타 2건 ▲심리검사 209건 ▲지원서비스 3,508건으로 총 4,74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렇듯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톡톡히 다지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및 부모 교육 실시

청소년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청소년 상담의 이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신병리 이해와 청소년 자살·자해 이해 ▲위기관리 및 개입방안 ▲실무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주제로 108명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개입 시 꼭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강화를 도왔다.

부모 자녀 간 갈등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의 이해 ▲의사소통 ▲긍정훈육 ▲성격유형을 통한 자녀이해 등 다양한 주제별 교육을 실시했다. 4회 교육에 2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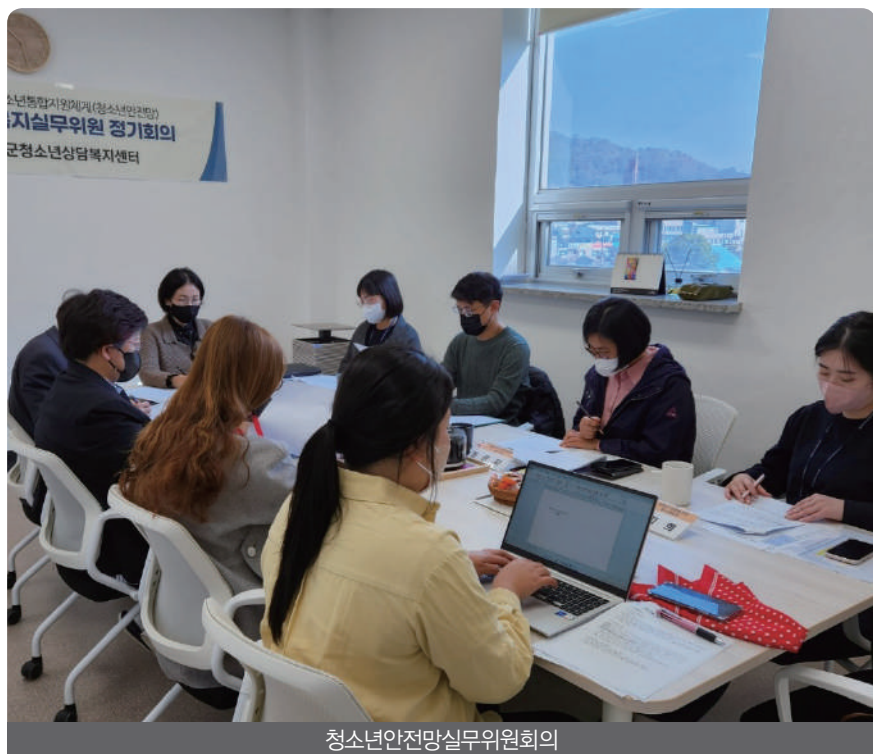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맞춤형 정책 발굴

강화 지역 청소년의 일상의 이슈를 모으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인 청소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일상의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을 공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청소년들의 이슈를 해석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2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포럼을 열어 청소년, 교육청, 청소년정책관계자와 공유하고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원탁토론을 통하여 심화, 발전시켜 청소년과 관·학이 협력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어른의 태도로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와 공감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이라며 “강화군의 미래! 청소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안전망실무위원회의



학교폭력예방교육_방과후

강화군,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2023년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지원

- 신청기간: 2023. 3. 10. (금)까지
- 지원대상: 강화군 소재 대형음식점
(영업장 면적 330㎡ 이상, 객석 100석 이상, 5년 이상 운영 등)
- 지원내용: 음식점 내·외부 전반적 시설 개선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3억, 2억, 1억) 차등지원 (50%보조)
- 신청방법: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 제출서류: 강화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930-3832

2023년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 신청기간: 2023. 3. 10. (금)까지
- 지원대상: 강화군 소재 이용업소 (3년 이상 운영)
- 지원내용: 영업장 바닥, 조명, 이용설비 교체 등 시설개선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1천만 원 지원 (60%보조)
- 신청방법: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 제출서류: 강화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930-3535

2023년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 신청기간: 2023. 3. 10. (금)까지
- 지원대상: 강화군 소재 일반음식점 (1년 이상 운영)
- 지원내용: 홀, 주방, 화장실 등 내부 시설 개선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1천 5백만 원 지원 (60%보조)
- 신청방법: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 제출서류: 강화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930-3832

2023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 신청기간: 2023. 3. 10. (금)까지
- 지원대상: 강화군 소재 일반형 숙박업소
(객실 15개 이상, 3년 이상 운영)
- 지원내용: 객실, 복도,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3천만 원 지원 (50%보조)
- 신청방법: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 제출서류: 강화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930-3535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